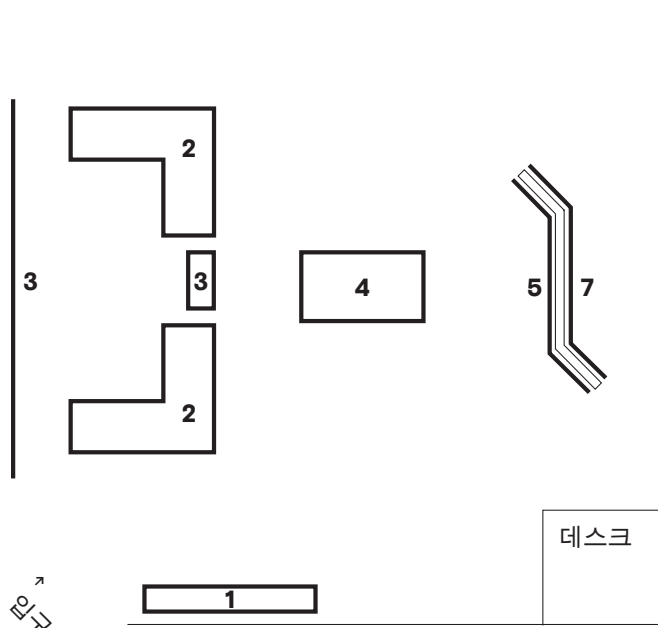


원 테이블: 7. PAPER TO SPACE, 한국관

One Table: 7. PAPER TO SPACE, Padiglione Corea

2026년 8월 12일 ~
11월 30일

*
'PAPER TO SPACE'는 종이
공간이 되어 간 두 겹의 과정을
가리킵니다. 서신과 도면이 오가며
한국관이 지어진 과정, 그리고 그
기록이 3D 모델로 한국관을 다시
지은 과정입니다. 두 설계자를 이은
영어, 그리고 같은 건물을 '한국관'과
'Padiglione Corea'로 부르는 두
도시의 한국어와 이탈리아어, 이
세 언어는 컬렉션을 이루는 기록의
언어이기도 합니다.



ONE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
원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컬렉션
을 주제로 «원 테이블: 7. PAPER TO
SPACE, 한국관»을 선보인다.

한국관 컬렉션은 1995년 베니스 자르
디니 공원에 마지막으로 신설된 국가
관인 한국관의 건립과 운영 기록으로
구축되었다.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
한국관을 지었고 개관 이래 전시와 공
간을 운영해 왔으며, 2022~2023년
공동 설계자 프랑코 만쿠조(Franco
Mancuso)가 설계 기록 전량을 기증
하면서 건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
주는 기록이 컬렉션에 더해졌다.

컬렉션은 서울과 베니스를 오간 팩스
와 스케치, 인허가 행정문서, 도면과
모형, 시공 계약 서류, 현장 사진 등 약
2,200건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.
내용에 따라 '한국관 전시', '한국관 운
영', '만쿠조&세레나 건축사사무소' 시
리즈로 구분해 정리하였다.

6

- 1 **VOICE TO PAPER** 한국관을 향한 1993년 이전의 시도들·영상 <한국관 이전의 목소리>
- 2 **PAPER TO PAPER** 서울과 베니스, 두 도시에서 생산된 협상의 문서·한국 현지 기록 | 이탈리아 현지 기록
- 3 **PAPER TO SPACE** 기록으로 설계 과정을 재구성한 3D 웹 콘텐츠 <Tracing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>
- 4 **HAND TO PAPER** 설계자의 스케치와 도면집·영상 <설계자의 기억>
- 5 **PAPER TO PUBLIC** 1994년, 베니스 시민에게 공개된 착공 기념전 패널
- 6 **SPACE TO VOICE** 기획자, 작가, 운영자가 말하는 한국관·영상 <한국관과 사람들>
- 7 **SPACE TO PAPER** 한국관 건립 연표, 1960~2026·문화체육부·한국문화예술진흥원 행정문서

TABLE

한국관은 유리와 금속으로 지어지기
전에 종이 위에서 먼저 지어졌다. 언
덕 지형과 수목을 보존할 것, 지하를
파지 않을 것, 주변의 조망을 가리지
않을 것. 어렵게 확보한 부지는 여러
제한이 겹친 장소였고, 유리로 감싼
투명한 벽과 지면에서 들어 올린 바닥
은 두 설계자가 그 조건에 응답하며
찾아낸 해법이였다.

«원 테이블: 7. PAPER TO SPACE, 한
국관»은 팩스와 스케치, 도면과 행정
문서를 따라 종이 위의 합의가 자르디
니의 한 공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
을 되짚는다. 이 전시가 한국관 컬렉션
을 열람하는 입구가 되기를 바란다.



QR코드를 통해
<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
컬렉션> 기록물을 열람할 수
있습니다.

<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컬렉션>은
아르코예술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
열람 가능합니다. (이용일 3일전 예약 가능)

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
(artsarchive.arko.or.kr) → 기록물 검색 → 기록물
선택 및 담기 → 열람 예약 → 승인 후 예약일 방문

ONE

TABLE

